스마트팜 기술, 베트남서 뜨거운 관심

정헌율 익산시장, 현지 기업과 협약 체결… 생산 바이오 원물 생산·공급·유통 등

익산의 농생명 바이오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얻으며 수출의 물꼬를 텄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기업들과 스마트팜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정 시장과 박성진 농업회사법인 렛츠팜㈜ 대표, 고고그린 등 베트남 유통회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익산시-렛츠팜㈜베트남'이 유기적인 삼각 협력을 통해 익산 바이오 원물·소재를 생산하고, 공급과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렛츠팜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식물재배기와 농업 로봇, 약용작물 정밀농업 등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 현재 익산 2곳을 포함해 전북에 4개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렛츠팜은 자사 식물공장에서 스마트 농업기술로 생산한 양질의 양상추를 엔젤리너스와 롯데리아에 납품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병풀 등 약용작물의 최적 재배 모형을 개발하기도 했다.

베트남 현지 기업 고고그린은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다. 고고그린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익산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익산 생산 바이오 원물과 소재를 수입·유통할 계획이다.

박성진 렛츠팜 대표는 "베트남, 네팔, 인도 등 해외 6개국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쌓은 기술과 영업망을 근간으로 고향인 익산에서 대규모 스마트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 시장은 익산 식품산업 알리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호치민 영사와 만나 베트남 식품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현지 전문가들에게 베트남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정보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군산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제4차 군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22~2026년)'을 수립한다.

시는 22일 시청 면담실에서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주재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수혁기술공사에서 담당하고 금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군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상위계획인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인 군산도시기본계획등을 반영하여 군산시 실정에 적합한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개발 등 새만금 최인접 지역으로서 새만금 개발 변화에 발맞춘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 및 장래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군산시 대중교통의 실태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비전으로 미래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세부적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제4차 군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성 및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수단과 시설을 개선·확충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농업인대학, 농업·농촌 미래선도자 4개 과정 양성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농업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시는 2월 5일까지 '제17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익산농업인대학은 정부시책과 소비 흐름에 발맞춰 △청년농업인CEO(40명) △온라인마케팅(20명) △농산물가공(30명) △신규농업(40명) 등 4개 과정에 130명을 선발한다.

특히 청년농업인CEO 과정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대응해 논콩, 가루쌀 밀, 조사료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청년농업인 30명과 전략작물 전문가를 희망하는 일반농업인 10명이나 지원결과에 따라 배정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요강과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다음달 22일 개별 통보되며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농업인대학은 3월 입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이론교육부터 우수농가 벤치마킹, 실습까지 과정마다 20강 이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22일 군산시-타코마시 자매도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군장대학교와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 간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식을 가졌다.

미국 자매도시 총장 군산 방문

군장대-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군산시는 22일 군산시-타코마시 자매도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군장대학교와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 간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식을 가졌다.

군산시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체결식은 두 대학이 교육의 국제화 및 유학 지원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산시와 타코마시는 1979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시장단 상호 방문뿐만 아니라 군산고등학교 농구부와 군산여상 배구팀이 각각 1979년과 1980년에 타코마시를 방문하여 친선경기도 했다.

2001년에는 타코마시 베이커중학교 학생들이 군산시를 방문,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류 활동을 지속해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기관인 군장대학교와 다양한 직업 기술 프로그램을 보유한 타코마 커뮤니티 칼리지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축하했다.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은 "군장대학교와 타코마시는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APCC) 초청으로 2014년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 한지패션쇼를 시애틀과 타코마시에서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스마트농식품과 한식 문화교류 행사, 2021년 APCC 창립 25주년 기념 한지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해왔다"라며 "양 대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마약·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 발의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관련 사업 수행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북 도내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까지 적발되면서 마약의 문제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익산시에서는 매년 마약퇴치 근절을 위해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익산시는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함께 추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군산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24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군산시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3,217명으로 지난 2022년 대비 1,033건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만15세 ~ 만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신규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거나 산림조합원 확인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서동한의원 재가생활 지원 '맛손'

익산시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시는 22일 서동한의원(원장 임태형)과 20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모에 서동한의원과 함께 신청해 선정됐다.

협약에 따라 서동한의원 재택의료팀은 1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가정내 돌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